남겨진 죄책감·잊혀지는 두려움…고통에 짓눌린 삶 여전

유가족들 힘겹게 버텨온 1년

이대로 묻혀 '끝난 일' 될까 불안
퇴직 후 일주일 중 6일 공항 생활
냉소적인 시선, 마음 아프게 해
정부 미진한 대응 속 생계도 막막
진상 밝혀질 때까지 기억해 주길

어렵게 만난 30명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잊혀지는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

참사 이후 지난 1년 동안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무엇 하나 이뤄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사회적 무관심과 냉소적인 반응, 사회적 낙인만 커진 상태라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피해자가 죄를 지었느냐", "살아남았다는 죄로, 온 세상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는 것 같다"며 한 목소리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 24일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만난 고재승(43)씨는 부모님의 여행을 말리지 못했다는 후회와 자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회사를 휴직한 지 벌써 8개월째다.

고씨는 "1년의 시간이 그대로 멈췄다. 하루에도 몇번씩 눈물이 차오르는 탓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며 "내가 함께 갔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매일 그 생각을 한다. 사고 이후 마지막 모습이 너무 훼손돼 제대로 안아드리지 못했던 것도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털어놨다.

유가족들은 공항을 떠나는 순간 참사가 '끝난 일'로 취급될까봐 불안해서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사람이 진상규명이 끝난 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조차 "다 끝난 것 아니었느냐"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지인과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잠시 웃기라도 하면 '이제 마음 정리된 것 아니냐', '다 끝났나 보다'라는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이 유가족들 말이다.

여홍구(72)씨는 "사고가 이대로 묻혀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여씨는 1년 전 사고로 아끼던 딸과 사위, 두 손자를 한번에 잃었다. 그는 가족들이 공항에 도착하고도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알기 위해 유가족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씨는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은데 유가족들조차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서 "책임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모든 것을 감추며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것 같다. 공항을 떠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사고도 그대로 묻힐 것만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다 배상받지 않았느냐', '이미 다 해결된 이야기 아니냐'는 냉소적인 눈초리도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그는 "공항에서 밤을 새우고 대통령실 앞에서도 노숙하며 현장을 지켜왔다. 그런 고됨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면서 "다만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는 시선이 너무나도 괴롭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성철(54)씨도 "가장 힘든 건 1년째 공항에 머무는 나를 주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며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고 아들과 매일을 버텨내고 있다.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퇴직한 뒤 일주일 중 6일을 무안공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아들이 학교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임을 친구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며 사회적 낙인과 시선이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국적인 지원이 이어졌던 참사 직후와 달리 시간이 흘러 관심이 점차 끊기면서 생계 문제 역시 유가족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도희(여·41)씨는 "주변 유가족들을 보면 가장의 사망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생활이 어려워진 가족들을 위한 가사·생계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 피해가 막대한 사고임에도 지역사회의 관심마저 옅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가족들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진상 규명이 마무리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참사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또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1년 동안 정부는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사고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등 거리를 벌리더니, 진상규명 속도를 높이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A(여·46)씨는 "왜 항공사도, 국토부도 요지부동이고 피해자인 우리들이 거리로 나서야하느냐"며 "공청회를 연기해달라고 하고 삭발 투쟁에도 참여했는데 여전히 진상규명은 하나도 되지 않고 책임지고 처벌받은 사람도 단 한 명이 없다. 1년 동안 정부를 믿었는데 이제는 답답한 마음만 남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박근우(24)씨는 "정부의 무관심이 도를 넘었다. 조사 속도를 높일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아예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유가족들은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유순희(여·74)씨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조속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편안하게 천국을 여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날까지 국민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연신 눈가를 훔쳤다.

/김진아·서민경·양재희·윤준명 기자 jinggi@

무안국제공항 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머물고 있는 쉘터(피난 텐트)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장 시급한 것은 '진상'과 '치유'
딸·부모·가족·엄마 등 많이 언급

유가족 30명 인터뷰 키워드 분석

마음·충격 등 심리적 고통 호소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진상'과 '치유'였다.

광주일보는 참사 유가족 30명을 대면 인터뷰한 뒤, 인터뷰 내용 전문을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빅카인즈'를 통해 분석해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와 키워드의 빈도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유가족들이 언급한 총 2119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가족과 관련된 단어였다.

'딸'이 언급된 경우가 47회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도 31회로 뒤를 이었다. 가족(28회), 아들(28회), 어머니·엄마(24회), 남편(19회), 아내(19회), 손주(10회), 남동생(8회), 사위(8회), 아버지(7회) 등도 이어졌다.

유가족들은 진상(24회), 규명(19회), 정부(12회), 진실(6회), 책임자(6회), 국토부(5회), 로컬라이저(3회) 등 진상규명과 관련된 단어도 다수 언급했다.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경찰이 조사·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직 진상규명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등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유가족들이 심리적 고통과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도 자주 나왔다.

마음(25회), 충격(8회), 가슴(6회), 고통(5회), 눈물(4회), 재발(3회), 정신과(3회) 등 단어가 여러 유가족에 걸쳐 언급됐다. 일상(17회), 사회(11회), 삶(9회), 생활(8회)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삶이 힘들어졌음을 암시하는 단어도 다수 나왔다.

유가족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약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 "자다가도 잠에서 수차례 깬다", "신체가 마비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고 정신과도 다닌다"는 등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반응을 다수 보였다. 유족들에 대한 신체·정신적 치유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단일 키워드로서는 '사고'(54회)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단어들을 빈도별로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

유가족 10명 중 9명 우울감…70%는 불안증세

'코호트 연구' 결과 보니

42% "유가족 사실 숨기고 싶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10명 중 9명은 우울감을 느끼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참사 이후 대부분의 유가족이 '유가족 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타인이 나를 불편해할까 걱정됐다'고 응답했다.

25일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 코호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사 유가족 중 '심한 우울'을 겪고있는 이들은 30.7%였고, 34.1%는 '중한 우울', 24.4%는 '경미한 우울'로 전체의 89.2%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중한 우울감 이상은 일상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으로 분류된다.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불안증세를 보이는 유가족은 70%,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이들 역시 과반을 상회하는 53.7%로 집계됐다. 자살가능성이 높은 유가족은 17.1%였다.

이번 조사는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 5~9월까지 유가족 2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의료기록 분석을 통해 도출됐다.

참사 유가족은 사고 이후 가장 힘들었던 상황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사망 확인 지역 및 행정 처리'(80.5%)를 꼽았다. 이어 '장례 및 후속 절차 진행'(53.2%), 언론 노출과 보도 대응(43.9%), 주변의 무관심 또는 오해(39.5%) 등 순이었다.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사회적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 중 45.9%는 참사 이후 '타인이 나를 불편해할까 걱정됐다'고 했고, 44.9%는 '특별하게 대하거나 동정하는 시선이 불편했다'고 답했다. 또 '유가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는 응답도 42.4%였다.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예방 전략과 개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